



로컬들의 광합성 핫 스팟.

5 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로컬들의 햇살맞이

루체른 호숫가 공원 풀밭에 앉아 여유롭게 맥주 한 잔, 일요일이면 바베큐도
봄바람 든 아이들 데리고 치즈마을로 소풍 떠나는 스위스 사람들
손잡을 핑계가 필요한 사이라면 스틸 넘치는 절벽 코스로

스위스는 일반적으로 5 월부터 10 월까지를 여름 시즌으로 여긴다. 햇살이 좋아지고, 산 속의 눈도 모두 녹아 하이킹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햇살맞이를 하려는 이들이 도심지 공원이나 도시 외곽의 하이킹 코스로 모여든다. 로컬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즐겨찾는 곳을 소개한다.

1. 루체른(Luzern)의 부베뜨(Buvette)

“인젤리(Inseli)”는 루체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다. 이 작은 공원은 루체른 기차역 뒤에 있는 호수에 접해 있는데, 그늘도 잘 지고, 경치도 좋아 여름이면 현지인들이 모여 햇살맞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. 특히 스낵바가 4 월부터 9 월까지 오픈하는데, 저렴한 음료와 편안한 음악을 선보여 인기다. 데크 চে어에 앉거나 풀밭에 앉거나, 테이블에 앉아도 루체른의 풍경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. 피크닉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, 일요일이면 낮 4 시부터 호숫가 바베큐가 열린다. 위치는 루체른의 베르프트슈테그(Werftsteg)를 찾으면 된다.

2. 베른(Bern) 근교 치즈마을 에멘탈(Emmental)로의 소풍

햇살이 좋아지면 마음 설레는 것은 아이들이 먼저다. 아이들이 있는 스위스 가족들은 소풍채비에 바쁘다. 그 중 인기 있는 곳이 바로, 에멘탈 치즈 마을이다. 베른 근교에 있는 에멘탈러(Emmentaler)는 톰과 제리에 등장하는 구멍이 송송 뚫린 치즈의 이름으로, 이 치즈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구경해 볼 수 있다. 아름다운 알프스 구릉지대에 위치한 마을은 햇살 좋은 소풍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풍경도 선사해 준다. 공장에서는 자신만의 크림치즈도 만들어 볼 수 있고, 한국어 가이드 투어 책자가 있어 더욱 편리하다. www.emmentaler-schaukaeserei.ch

3. 봄 햇살 스틸 넘치게, 쉴트호른(Schilthorn) 비르그(Birg)

007 로케이션으로 유명한 쉴트호른에는 스틸 넘치는 전망 코스가 있다. 중간 역, 비르그에서 깎아지른 알프스 봉우리들의 풍경을 짜릿하게 감상할 수 있다. 비르그에 내리면 스카이라인 워크(Skyline Walk)라는 전망대가 나온다. 전망대 너머로 펼쳐지는 융프라우 지역의 눈부신 파노라마가 한 눈에 들어 온다. 이 전망대에서 절벽을 따라 스틸 워크(Thrill Walk)라는 전망용 구조물이 이어진다. 스틸 워크 코스 중 약 20m 구간은 유리 바닥으로 만들어져 있어, 아찔한 알프스 절벽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. 9m 구간은 로프로 만들어진 다리이고, 8m 구간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동심 가득한 어른들을 위한 기어서 통과하는 터널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어, 다양한 방식으로 알프스를 둘러 볼 수 있다. 전 구간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코스가 이어지다가 다시 비르그 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. www.schilthorn.ch

자료제공: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.MySwitzerland.co.kr